

■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 운전자들 생각은?

“안전취지 공감...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시행
일반도로 기존 60km→50km
도민 “제한속도 조정 긍정적”
경찰, 과속 2만3000건 적발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한달이 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은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제도를 일부 개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됐다.

이같은 속도 조정에 운전자들은 처한 상황에 따라 반응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취지를 공감했다.

연삼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강성룡(29)씨는 “안전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잘 줄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엔 속도가 느려 답답했지만 지금은 적용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오전부터 저녁시간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밤·야간 시간대는 속도를 높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조정된 가운데 운전자들은 안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탄력운영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자들 사이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오전부터 저녁시간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밤·야간 시간대는 속도를 높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화물차 운전자 문모(32)씨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시내에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속도를 줄인 취지는 공감한다”며 “운송업종은 배 시간에 맞춰 야간에 도 운행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고, 차량이 적은 야간시간 대에는 속도를 올려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했

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달간 정책을 시행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과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정책 시행 날짜인 지난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 도내 56곳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한 결과 2만3786건(고정식·이동식) 과속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km/h 이하 초과는 2만982건, 21~40km/h 2602건, 41~60km/h 188건, 60km/h 이상 초과 1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

은 기간 3만2440건(고정식·이동식) 대비 8654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단속을 살펴보면 20km/h 이하 초과는 2만5352건, 21~40km/h 6372건, 41~60km/h 631건, 60km/h 이상 초과 8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착이 좀 더 돼야 하겠지만 홍보 등이 많이 이뤄져 운전자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 5030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만 60~74세 백신 접종 예약률 43%

만 60~64세는 30% 그쳐
만 70~74세 17일 기준 56%

제주지역에서 만 60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약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60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 대상 백신 사전 예약률은 42.98%에 그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64세가 대상자 4만 8072명 중 1만4583명(30.34%)이 예약해 예약률이 가장 낮았다. 65~69세는 48.32%(3만5084명 중 1만6953명), 70~74세 56.19%(2만5633명 중 1만4404명)로 파악됐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5922명 중 3404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해 57.48%의 예약률을 보였다. 고위험군인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대상자 161명 중 65명(예약률 40.37%)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지역에선 지난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10일부터 내달 3일까지 65~69세,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60~6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접수받고 있다.

사전 예약은 가까운 관할 보건소나 중앙콜센터(1339)로 전화 예약하면 되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한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일주일간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

도 “10건은 행정처분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일주일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건, 행정지도 49건 등 59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5건,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6건,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체온계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주말인 지난 15~16일 이틀 동안엔 점검 결과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8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1건,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농어촌민락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건, 체온계 미비치 1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 적발돼 행정지도 조치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송재호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검찰, '벌금 90만원' 불복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의 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7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의 이유로 송 의원 사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지난 12일 진행된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은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민성기자

‘렌터카 감차’ 계획 없던일 되나...

렌터카 업체 3곳 제주도 상대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롯데렌터카 등 3개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도내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

의 특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이 사건 공고처분이 제주 지역 교통체증 해소 또는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3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두가지 수단인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을 통한 등록기간 제한과 운행제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등록제한을 통해 신규 렌터카 등록이 억제되고

기존 등록 렌터카는 점차 처분이나 폐차 등을 통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특정 렌터카에 대해 무기한 운행 제한 및 영업용 사용을 영구 금지해 실질적 감차명령과 같은 효과를 봤다”며 “이런 운행제한이 가능하면 등록제한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특정 시간·지역 운행제한, 전체 차량 부채 실시 등 원고에게 덜 침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강민성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벨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전기수도배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5월가정의달스타키보청기구매고객 약20만원상당녹음선착순무료증정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사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쉴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보청기) 한리제약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환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